물밑 공조 한계…미국 개입하나

국무부 "5일 美-아프간 정상회담 관심사"

외교·정보력 등 직·간접 지원 치중할 듯

국내 정치권 및 인권단체들이 탈레반에 억류된 한국인 인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탈레반이 인질 석방 조건으로 아프간 정부가 수감하고 있는 탈레반 '포로들'을 풀어주는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인질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및 아프간 정부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인 인질문제가 오는 5~6일 회담을 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고 언급,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일 한국인 인질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및 아프간 정부와 아주 긴밀히(very closely) 협력하고 있다"면서 "인질들이 즉각 석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6일로 예정된 미·아프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관련, "한국인 인질문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들 중 하나"라면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두 지도자의 관심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아프간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과의 공개적인 협력보다는 '물밑공조'에만 역점을 둬온 미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예측도 제기됐다. 미국이 기존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지난 3월 이탈리아 기자 납치 때처럼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 일각 및 인권단체들이 희망하는 대로 미국이 탈레반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거나 인질석방의 조건으로 탈레반이 요구하는 대로 아프간 정부의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선 섣부른 기대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러범들에게 양보를 하면 궁극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인질범이나 테러범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가 이탈리아 기자 석방을 위해 탈레반 수감자와 교환했을 때 이를 강력히 비난했고,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도 '예외적인 조치'라며 미국 측에 해명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협상에 미국이 직접 나서거나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허용 또는 묵인하기보다는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탈레반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아프간 정부가 인질구출 작전에 나서고 한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형제들이여 한국인 석방을" 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슬람교도들이 아프간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태해결 묘안은 없나

탈레반 포로 '특별사면 끼워넣기' 등 주목

한국과 미국 양국이 2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함에 따라 그 수단이 무엇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국인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탈레반 측이 '한국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용한 모든 수단'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간 정부가 수감 중인 탈레반 죄수를 석방할 권한이 없으며 맞교환 형식을 취할 경우 '테러단체와 협상 불가' 원칙에 상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미국의 대테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는 지난해 1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미국인 여기자 질 캐럴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82일 만에 풀려난 사례가 그 실례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이라크 무장세력은 수감 중인 이라크 여성을 모두 석방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라크 정부는 400여명의 수감자를 특별사면 형식으로 석방하면서 무장단체가 요구한 여성 수감자 5명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처럼 이번에도 탈레반 측이 요구하는 일부 수감자를 포함하는 선에서 아프간 정부가 미국과의 물밑 공조 속에 일종의 '사면'을 단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현재 탈레반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미 공조는 물론 아프간 정부의 과감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방안 외에도 양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나 우리 정부가 탈레반 측과의 접촉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채널을 공유하는 것도 사태 해결을 위한 '낮은 수준'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연합뉴스

"다로 칸 사령관 석방 위한 탈레반 표적 납치에 걸려"

■뉴스위크 '인질사태' 보도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1일 인터넷 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인질 억류 사태의 일단을 보도했다.

탈레반 고위 지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를 조명한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 고위 지휘관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질극을 주도한 인물은 물라 압둘라 탈레반 부사령관이다. 사령관인 다로 칸이 지난 6월 가즈니 지구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됐기 때문에, 그의 석방을 위해 맞교환할 외국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탈레반은 카불과 칸다하르를 잇는 도로를 순찰하며 인질로 삼을 외국인을 물색하던 중 '운 좋게' 한국인들이 타고 가던 흰색 버스를 발견했다.

탈레반이 즉각 오토바이를 버스 옆에 붙이고 AK-47 소총과 수류탄을 운전사의 머리에 들이대자 운전사는 속도를 내 도망가는 대신 차를 세웠다. 인질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납치범들은 워키 토키와 휴대전화로 압둘라와 교신을 하면서 버스를 인근 마을로 끌고 간 뒤 즉각 한국인들을 하차시켜 5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국인 인질들은 카라바그와 카라바그 인근의 안다르, 가즈니시 근처 다흐야크로 분산 수용됐다.

탈레반은 즉각 아프간 정부에 한국인 인질 23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탈레반 구금자 115명의 교환을 요구했다. 1 대 5의 비율을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협상을 질질 끌자 석방 대상 탈레반 구금자의 수를 23명으로 줄였고 지금은 8명의 명단을 아프간 정부에 넘긴 상태다.

아프간 정부는 구금자 일부가 바그람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에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들의 석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억류중인 한국인 인질은 여성 16명, 남성 5명이다. 이들은 탈수증과 장 뒤틀림 등의 증세로 갈수록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다. 탈레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여성 인질 한명 이상이 극도로 몸이 좋지 않은 위독한 상태이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협상 중재에 나섰던 부족 원로들은 여성 인질 억류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 인질 석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탈레반 지휘관의 얘기다.

이 지휘관은 이번 주초 새벽을 틈타 헬기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군이 카르바그와 셀그하리 사이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했으나 인질들을 찾는 데 실패, 탈레반에 협조하지 말라는 전단만 뿌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국 개신교도 가장 열렬한 복음 전도자"

■佛 르 피가로지 보도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1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혀 있던 한국인 인질 중 심성민씨가 두 번째로 희생된 소식을 전하면서 전세계 개신교도 중에서 한국인 개신교도가 가장 열렬한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한국의 개신교 역사와 전도 활동을 소개한 기사에서 김선일씨가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돼 참수된 이래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자국민에게 주의하도록 당부해왔고, 지난 2월에는 한국 외교부가 기독교 및 인도주의 임무를 위해 아프간으로 가는 자국민에게 피랍 위험을 알렸으나 한국의 신자들은 위험을 개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해 여름엔 한국의 신자들이 카불 인근에서 전도사 1천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일종의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었다면서 그들은 위협이 증폭되기 전에 이런 시도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19세기에 가장 적대적인 땅들을 누빈 장로파 개신교도와 같은 정도로 결연한 한국인들은 그들의 장로파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며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1만5천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중 대다수는 아시아에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역할과 교세 확장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 수는 미국의 선교사 수 다음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